



한수훈수는 받아도 포석은 없다,
아날로그 정신의 소중함 보여주는 시대의 초상

산문집 《글 뒤에 숨은 글》 낸 문학비평가 김병익

한밤중에 문득 깨어 “엄니, 죽더라도 나 장가보내고 죽어!”, 단잠에 젖은 어머니를 깨워 말했던 사람, 백지가 없어 우등상장 뒷면에 외운 대로 세계지도를 그려 보았던 사람, 보문산 뒷줄기의 한없는 산맥의 뺨침을 본 이후, 산은 두렵고 산맥은 절망스러운 것이 되었다는 사람...

산문집 《글 뒤에 숨은 글》에 담긴 김병익(66) 씨의 유년 풍경이다. 그 서정이 손에 잡힐 듯 선연한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대상을 미화하는 데 ‘잼병’이라는 사실이 있다. 바둑 3급의 실력을 자랑하지만, 그는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 포석을 놓을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그가 담백하게 옮겨놓은 풍경이니 선연할밖에 없다. ‘스스로를 향한 단상’이란 부제를 가진 산문집을 펼치면, 검은 그를 만날 수 있다. 처세는 지인들에게서 모두 얻었다 하며, 그 처세를 대입할 지난한 시대도 자신만은 비껴갔다고 한다.

“기자로, 비평가로, 그리고 출판인으로 늘 남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었지

요. 그런 까닭에 자전적인 회고록의 글을 책으로 묶으려니 면구스러울 밖에도. 저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지에서 책을 내려니 더욱 면구스럽고... 거리감이 있다면 면구스러움을 덜지 않을까 해서 문학동네에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식민지 해방 전쟁 유신 등 역사에서 겪을 모든 것을 다 겪은 세대입니다. 기구한 역사를 지나오며 큰 상처 없이 잘 지내왔다는 것이 대견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 덕분에 무난히 살아온 것 같아 저자후기에 ‘세상이여, 반갑다, 사람들이여 고맙다’고 그 마음을 적기도 했습니다.”

김병익 씨는 1965년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로 근무하면서 문학·학술·출판 등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무렵 김현, 김치수, 김주연, 홍성원 등과 친구이자 문학적 동료로 인연을 맺게 된다. 1974년과 1975년 한국기자협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동아·조선의 언론과 동 진통 속에서 국제기자연맹에 보낸 보고서를 빌미로 회장직 사퇴는 물론, 기자 직도 해직 당하게 된다. 열정으로 일궈낸 진일보한 신문의 문화면을 짚어본다면 전화위복이란 말은 쓸쓸하겠지만, 그러나 그의 해직으로 인해 우리는 시대의 지성을 넓게 품었던 출판사 '문학과지성사' 를 얻을 수 있었다.

“1970년대는 정치적으로 오목한 때였습니다. 출고 어둡고 또 전망도 보이지 않았지요. 당시 김현이 지인과 합자를 해 출판사를 차려보자고 했습니다. 생계의 길을 찾기도 해야 했지만, 김현의 강권을 이길 수 없었지요. 문예지 <문학과지성>을 내고 있던 터라 상당한 프리미엄을 갖고 시작할 수 있었어요. 출판사 등록증이 나온 날이 1975년 12월 12일입니다.”

청진동 해장국 골목, 7평 남짓한 공간에서 문지는 시작되었다. 김현, 김치수, 김주연, 김병익으로 말해지는 문지 4K 시절을 개막한 것. 조해일, 홍성원 등 시작부터 '잘 나가는 작가' 를 필진으로 둔 출판사였지만 문지를 합자한 그들은 초심을 잊지 않았다. 수필집, 아동도서는 내지 않는다. 자비출판은 사양한다 등 그들이 내세운 원칙은 잘 나가는 출판사의 허세가 아니었다. 시대와의 불화로 적의를 잃은 지성인들이 기댈 수 있는 출판사를 만들겠다는, '정신' 을 반영한 원칙일 뿐이었다. 돈벌이에 얽매이지 말고 채투자를 위한 경영을 하자던 다짐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 같은 초심을 잊지 않고 25년 동안 문지의 살림을 꾸려 온 그는 지난 2000년 상무로 재직중이던 시인 채호기 씨에게 경영권을 넘겨주었다.

“문지는 제 것이 아닙니다. 문지를 시작할 때부터 아랫세대에 대한 승계는 내정된 것이었지요. 1990년 김현이 작고하고, 1993년 변호사 황인철이 작고하면서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승계를 위해 1994년 주식회사로 개편하고 세기가 바뀌는 2000년, 후배 채호기에게 자리를 물렸습니다.”

해직 기자, 전직 출판사경영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현장비평가로 시대에 복무하고 있다. 자신의 이력을 드러내는 데 있어 겸손히 몸을 낮추지만, 비평에 있어서만은 예리한 통찰의 시선을 잃지 않는다. 특히 젊은 작가들에 대한 관심은 남다른데,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을 이룰 것인 한 전래의 문학이 쇠퇴할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21세기의 새로운 세대는 기왕의 술한 세대의 역사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들의 새로운 잣대를 만들어내리라는 믿음을 산문집에 적고 있기도 하다.

“신경숙 세대만 하더라도 경험이란 것이 있지만, 1990년대 작가들에게는 경험이란 것이 없어요. 우리세대는 개인적 경험도 민족사적인 경험으로 등식화될 수 있었지만, 요즘세대는 어디 그런가요? 개인적인 경험을 갖고 보편적인 호소력을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러나 가능성은, 인간의 운명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이 고통스럽게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한편 그는 지독하게 아날로그한 사람이다. 젊은 세대의 활기를 좋아하고 부러워하지만, 따라하려면 죽어도 못한다. 노래방과 춤방을 가본 적은 한두 번, 자판이나 두드릴 뿐 컴퓨터의 기능에 대해서는 문맹이며, 운전엔 취미가 없어 운

전면허증도 따지 않았다. 그가 즐기는 단 하나의 취미가 있으니 바로 바둑이다.

“문지 시절 바둑을 즐겨 두었습니다. '문지 기원' 이라 불렀으니 더 말 안 해도 되겠지요. 재미 삼아 두다보니 실력은 만년 3급입니다. 김현과 김치수는 저와 수준이 비슷하고 김주연은 한 수 아래죠. 김원일과 바둑을 제일 많이 두는데, 아마 그와의 연속 기전은 500판이 넘을 겁니다.”

앞서 드러낸 그의 면면은 이번 산문집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산문집 속에 담긴 그의 행보에 대해 재차 질문할 생각은 없었다. 인생의 한 수 훈수를 얻겠다는 마음이었을 뿐. 학원 세대의 한 줄에 끼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문학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창작은 범인들이 할 것이 못 된다”는 대답을, 산문집을 통해 겸손한 모습만 보았으니 개인적인 자랑을 해달라는 청에, “남의 말 잘 듣는 것 밖에는”이라며 그는 마른웃음을 지었다. “작품집 해설을 쓰고 나면 뭔가 빠뜨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라며 농담까지 던지는데, 나이가 든 것은 저 홀로 깊어 가는 세월이지, 그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듯했다.

《글 뒤에 숨은 글》은 스스로를 향한 단상' 을 넘어 '시대를 향한 단상' 을 담고 있는 책이다. 오목한 세월, 문화부 기자의 역사가, 출판사 경영자의 역사가, 현장비평가의 역사가 가감 없이 스며 있는 까닭이다. 오래 전 읽은 “뒤로 오는 여인이 더 다정하듯이 / 그리운 것은 다 산 뒤에 있다”라는 김용택 시인의 시귀를 기자는 그를 통해 비로소 이해했지만, 제 모습 드러내지 않고 슬그머니 행보를 내보이는 김병익 씨는 “뒤로 오는 여인이 더 다정”함을 진즉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아날로그의 힘이다. ■

취재 박용두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글 뒤에 숨은 글》 김병익 지음 | 문학동네 | 320쪽 | 10,000원